

특집

아름다운 캠퍼스에 걸맞은 건전한 본관문화제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배지현 기자 flejtjdp@khu.ac.kr

'경희랜드'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한 우리대학은 봄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래서인지 봄내음이 나기 시작하는 4월이면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생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본관으로 향한다. 본관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 음식과 술을 나눠먹는 일명 '본관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학 본부는 소음을 이유로 본관놀이를 금지했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안타까움을 표했다. 올해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본관놀이의 대안으로 벚꽃문화제 '경희BLOSSOM'을 제시했다. 자발적인 놀이문화에 그쳤던 본관놀이가 공식적인 축제로 서는 순간이었다. 일시적으로 허용된 본관놀이인 만큼 경희BLOSSOM의 어깨가 무겁다. 건전한 본관놀이 만들이라는 숙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본관놀이 환골탈태의 순간, 벚꽃문화제 경희BLOSSOM의 현장을 사진과 함께 담았다.



행사에 참여한 정연수(컨벤션경영학 2014) 씨는 “이전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본관놀이를 했는데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좋았다”고 말했다.

1. '브양관'

건전한 본관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경희블라썸 브양관'이 상주했다. 브양관은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환경미화, 질서 통제의 역할을 했다. 브양관은 절주동아리 '경희주도', '쿨 드링크', 총학 집행부, 경희봉사단으로 구성됐다.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보안관과 지킴이는 딱딱하고 학부생들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보안관을 빠르게 5번 반복하면 나오는 브양관이라는 정감 있는 말을 통해 학부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했다”고 밝혔다.



2. 푸드트럭 존

벚꽃문화제 기간 동안 청운관 녹원 앞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푸드트럭 존이 설치됐다. 푸드트럭을 통해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캠퍼스 내 쓰레기 발생을 지양하고자 했다. 남연희(정치외교학 2017) 씨는 “이전에는 본관놀이를 위해 멀리서 음식을 힘들게 사오거나 배달음식 밖에 못 먹었다”라며 “푸드트럭이 생기면서 다양한 음식과 함께 편하게 꽃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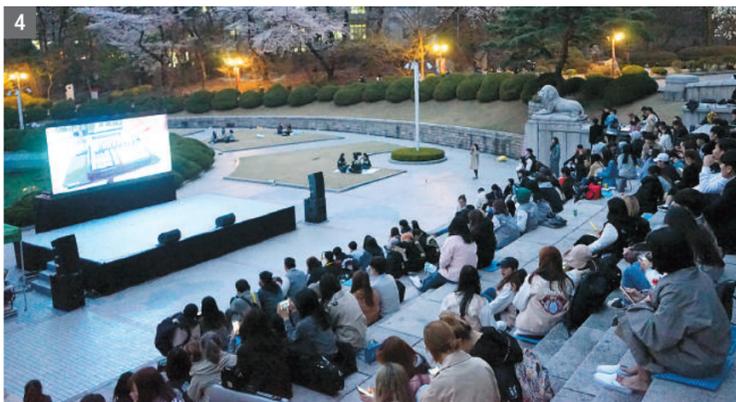
3. 본관 콘서트

본관 분수대 무대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학내 공연 동아리와 신인가수의 버스킹 무대가 이어졌다. 학내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 '칸타빌레'와 발라드동아리 '발라드랩', 호텔관광대학 밴드동아리 '매그놀리아'가 공연을 펼쳤다. 4월 11일에는 신인가수 '올코튼'과 중앙 밴드동아리 '네이키드'가 무대에 올랐다. 총학은 학생이 직접 준비한 버스킹 무대를 통해 학생들이 즐기는 본관놀이문화를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4. 본관 영화제

지난 11일 저녁에는 본관이 영화관으로 탈바꿈했다. 학생들은 본관 계단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노을을 맞이하며 영화 '라라랜드'를 관람했다. 본관 영화제를 보러 온 윤주원(간호학 2019) 씨는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했던 본관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 신기하다”며 “건전하고 재밌는 본관놀이 문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지됐던 본관놀이, 축제로 돌아왔다
“새내기야 본관에서 만나자”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자발적 놀이문화였던 본관놀이가 공식 축제로 돌아왔다. 지난 8일부터 4일간 진행된 벚꽃문화제 '경희BLOSSOM'은 금지된 본관놀이를 대신해 총학과 학생지원센터가 합의를 통해 마련한 축제였다. '건전한 본관놀이 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된 경희BLOSSOM의 이모저모를 모아봤다. 무심하게 기울인 술잔에도 낭만이 깃드는 계절이다. 벚꽃 흩날리는 본관에선 더욱 그렇다. 서울캠 학생들은 알러진 없이도 꽃망울이 입을 열면 하나둘 본관으로 모인다. 한 손에는 전공책을, 다른 한 손에는 돛자리를 든 학생들의 설렘 가득한 표정에 본관놀이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학본부는 본관놀이를 금지했다. 본관놀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본관을 비롯한 중앙도서관, 생활과학대학 등 인근 시설에서의 학업과 행정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학생들은 본관놀이 금지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총학은 벚꽃문화제 경희BLOSSOM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발적인 문화였으나 질서 없이 진행됐던 기존의 본관놀이를 체계적인 하나의 축제로서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먼저 총학은 기존 본관놀이의 문제를 '소음', '음주', '환경' 문제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경희BLOSSOM이 기존 본관놀이와 차별되는 부분은 단연 질서다. 총학은 이를 위해 전체적인 본관놀이 질서 지킴이 '경희블라썸 브양관(브양관)'을 본관에 상주시켰다. 벚꽃문화제 기간 동안 브양관은 올바른 음주문화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배달음식도 본관놀이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본관놀이 시즌이면 배로 오는 배달 오토바이 출입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대두됐고, 배달음식 쓰레기 처리도 문제였다. 총학은 배달 오토바이 출입 가능 구역을 제한하고 푸드트럭 존

을 설치했다. 쓰레기통을 추가 배치하고 환경미화 인력을 투입해 환경문제에도 대응했다.

경희BLOSSOM이 비단 질서있는 본관놀이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벚꽃문화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콘텐츠가 뒤따랐다. 본관에서 영화 '라라랜드'를 상영하는 '본관영화제'부터 '본관 콘서트', '산책로 작품전시' 등 축제의 면모도 갖췄다. 경희BLOSSOM이 이야기하는 건전한 본관놀이에는 음주 이외의 즐길 거리, 즉 문화생활도 포함되는 것이다.

총학의 노력이 통했는지 경희BLOSSOM에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연수(컨벤션경영학 2014) 씨는 “이전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본관놀이를 했는데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좋았다”며 “앞으로 발전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참여 소감을 밝혔다. 교직원 A씨 역시 “행사가 점심시간에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이렇게 건전한 문화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축제 분위기가 난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본관영화제' 상영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혼란도 있었다. 본관 콘서트도 마찬가지였다. 본관콘서트에 참여한 이정훈(경영학 2019) 씨는 “비가 와서 공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학과 연락이 매끄럽지 못해 연기나 취소 같은 결정이 늦었던 것이 아쉽다”며 “그래도 많은 관객과 공연을 마무리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학생들이 봄에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벚꽃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문화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번 경희BLOSSOM을 계기로 학생 스스로 건전한 축제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